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3월 5일
제1938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마태 17,1-3.5)



〈주님의 거룩한 변모〉, Gerard David

사순 제2주일 (가해)

제 1 독 서 창세 12,1-4ㄱ | 아브라함을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로 부르시다.

화 답 송 시편 33(32)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 서 티모 1,8ㄴ-10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 음 마태 17,1-9 |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그 무렵¹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3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4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5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6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 17, 2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white as light. Mt 17,2

바오로 딸 콘텐츠

복음 묵상

거룩한 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때 목격한 제자들은 그 영광을 “해처럼” “빛처럼” 찬란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태오 복음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빛에 이끌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빛은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 이유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 16,12-13 참조).

예수님의 영광은 모습이 변하셨다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서도 잘 표현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같은 하느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세례 때에도 예수님의 신원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인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가십니다. 사실 십자가와 영광은 서로 어울리지 않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그분의 수난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기를 고대합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사순 묵상

“사순 시기의 여정은 모두 개인과 교회의 변모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Fresco of
Transfiguration of the Lord,
Vienna〉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마태 17,2)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여정의 목적인 ‘정상’입니다. 끝까지 올라 예수님과 함께 산 정상에 섰을 때, 세 명의 제자는 초자연적인 빛으로 찬란한 영광 안에 계신 그분을 보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신성한 아름다움은 제자들이 타볼 산을 오르는 데에 들였던 온갖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힘겨운 등산 중이라도 우리는 그 길만을 올곧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펼쳐지는 광경이 우리를 놀랍게 하며 그 웅장함으로 보답해 줍니다.

사순 시기의 수덕의 여정과 시노드의 여정은 모두 개인과 교회의 변모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여정 안에서 이 변모는, **예수님의 변모 안에서 모범을 찾고 그분의 파스카 신비의 은총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이번 사순 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켜 주시어, 예수님의 신성한 광채를 경험하며 신앙 안에서 굳건해진 우리가 당신 백성의 영광이요 민족들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기를 빕니다.

〈2023년 사순시기 담화문 중〉

3월

성 요셉 성월

(Month of St. Joseph)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른 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의 삶을 묵상하는 달이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 천사의 명령에 따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조력자로 등장한다(마태 1,24 참조).

그렇지만 구세사에서 요셉 성인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성경에도 그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직업이 목수였고, 약혼자 마리아의 잉태를 알고 갈등하였으며,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헤로데 임금의 폭정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난하였다는 기록뿐이다(마태 1,19-24; 2,13-15; 13,55 참조). 그럼에도 요셉 성인에 대한 신심은 초대 교회 때부터 매우 깊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 19일이 요셉 성인의 축일로 자리 잡은 것은 12세기 무렵이다.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에게서 탈환하려는 십자군은 요셉 성인을 공경하고자 나자렛에 교회를 세웠다. 그 뒤로 성인에 대한 공경과 축제는 주로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전파되었다.

1479년에는 식스토 4세 교황이 요셉 성인의 축일을 모든 교회로 확산시켰다. 1870년에는 비오 9세 교황이 요셉 성인을 ‘거룩한 교회의 수호자’로 선언하였다.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 아멘.

1 Black & Indian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

- 이번 주일에는 Black and Indian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받습니다.
- 2023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85,000 입니다.
-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책정금액(\$)	세대수	약정세대/비율	약정액(\$)
185,000	2420	257세대/11%	119,100

- BLA 약정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세요.
- 참조 :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3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3월 5일(일) 오전 11:30 (A-3,4)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3월 5일(일) 오후 12시 (하상관 #4)

5 유아세례

-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단체장 회의

- 일시 : 3월 12일(일) 오전 11:30 (A-1,2)

7 2023년 봄학기 가톨릭 성서 모임

- 신청 문의 : 청년성서모임 - 강동철 로베르도 (571) 432-9950
- 주부 성서모임 - 신상희 글라라 (703) 399-4768
- 이메일 - spccblm@gmail.com
- 신청 마감 : 3월 19일(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8 하상 성인학교 2023년 봄학기 안내

- 일정 : 3월 14일(화) - 6월 16일(금)
- 등록 : 2월 26일(일), 3월 5일(일), 3월 12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과목 : 라인댄스, 수지 요법, 서양화, 문예 창작(시), 셀폰, 수목화, 장구교실, 기타교실, 색소폰 교실
- 등록금 : \$60(점심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주보대에 있는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 율리야나 (703) 217-2775

9 성령기도회

- 매주 화요일(오후 7시 30분 미사 후, 독서실)에 모임이 있습니다.

10 하상 한국학교 - 여름학기 교사 모집

- 사랑과 열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실 교사, 보조교사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 문의 : hasangkoreanschoolva@gmail.com

11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Daylight Saving Time 시작



다음 주일(3월 12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됩니다.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빨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수난
40 일간의 여정

주님수난 여정에 함께하며
기도와 자선, 희생의 살이기를
기도합니다

2월 23일(목)-4월 5일(수)

월요일-토요일(오전 5:30) 십자가의 길과 미사

주일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예식

The Light is ON for You

<https://thelightison.org/>



- 사순 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성체 헌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 교구 내 인근 성당에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교황님의 3월 기도 지향! 학대의 피해자들

교회 구성원들에게 받은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찾으려 기도합니다.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 ◆혼인 갱신식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본당 ME에 감사드립니다.
-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음식 판매에 도움 주신 PTO(자모회)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순 특강

일시 : 3월 26일(일) 오후 1시 - 3시 (친교실)
강사 : 김학범 일본소 신부(메리놀 외방 선교회)
주제 : '정체성'에 대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2월 26일(사순 제1주일)

봉헌금	\$ 7,238.00
교무금	\$ 9,880.00
교무금(신용카드)	\$ 7,980.00
감사 헌금	\$ 1,060.00
재의 수요일	\$ 4,058.00
2차 헌금	\$ 6,463.00
온라인 봉헌	\$ 3,180.00
합계	\$ 39,85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3월 9일(목) 오후 5:00 - 6:00
3월 10일(금) 저녁 8:00 - 9:00
3월 12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그리스도인의 결정과 신앙'
- 김인호 루가 신부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8:00 AM 10:00 AM(교중미사) 2:00 PM(학생미사)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6:00 AM	7:30 PM	11:00 AM	